

S/W 코딩을 마친 후

나는 처음에 S/W (소프트웨어) 코딩 프로그램 중 스크래치, 엔트리, 아두이노는 모르고 '123D 디자인'을 해본적이 있는데 재미있었다는 기억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다. 그런데 스크래치, 엔트리 를 해보니 3D 프린터 디자인 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. 스크래치, 엔트리로 명령어를 접속해 캐릭터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/게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. 그리고, 내가 게임디자이너가 된 기분이었다. 3D 디자인은 평면이 아닌 입체니까 할때 마다 재미있었다. 아두이노는 직접 LED를 켜 수도 있고, 컴퓨터로 명령을 내려 LED를 켜 수도 있어서 신기했다. 스크래치와 엔트리가 게임/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니 내 꿈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느낌이다. 3D 디자인은 입체 도형을 잘 관찰하고,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. 아두이노를 하기 전에는 LED의 장점이 오래 가는 것 밖에 모르고 LED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다. 그리고 건전지가 1.5V 나 3V 밖에 안되는 줄도 몰랐다. 그런데 LED의 장점과 건전지가 몇볼트인지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좋았다.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 하나 자세히 알려주셔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다. 무엇보다 무섭지 않고, 친절한 것이 가장 좋았다.

(선생님들이)

다음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다.